비가 쏟아지더라.

말씀: 창7:6-17
요절: 창7:12

인류에 처음 내린 비는 대홍수로서 심판의 비였습니다. 지금 이 땅은 비가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비가 없는 땅은 사막, 황무지, 광야로 변해 버립니다.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은 삼림이 무성하고 땅이 좋습니다. 그러나 노아 때까지 이 땅은 비가 없이도 지면에서 올라오는 안개와 이슬 등으로 충분했습니다(창2:6). 아담 때부터 노아가 600세가 될 때까지 약 1600년 동안 이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라고 말합니다(히11:7). 노아는 대홍수 심판 전까지 비, 홍수 등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대의 천문학자들, 과학자들, 지질학자들, 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노아가 선포하는 비, 홍수, 심판, 종말 등에 대해서 전혀 불가능한 일이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을 것이고, 행여나 노아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교육했을 것입니다. '비가 내려 온 땅이 물로 멸망한다.' 노아가 선포한 주의 심판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생소한 것이었고, 과학적 이해나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 온 땅이 멸망한다.' 이 시대에 베드로후서 3:7,20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소하고 이상하게 들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불신과 교만으로 가득 찬 과학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질 것이라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런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주의 말씀은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은 비록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있을 수 없는 일 같아 보이고 그렇게 들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_____입니다. *"회개"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3:9). 주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하면 비가 내리고, 우박을 내리신다고 하면 우박이 내리고, 불과 유황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쏟아집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우박이 내릴 수 있고, 눈이 올 수 있고, 만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고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불과 유황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또 역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고 그와 그의 떼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 위에 넘쳐흐르는 비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을 비를 내리듯 내리리라.]**(겔38:22). **[그분께서 사악한 자에게 올가미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 되리로다.]**(시11:6). 여러분은 장차 지상에 임할 이런 심판과 지옥의 심판과 영원한 불 못의 심판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혼들을 구원하는 구조대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주님은 이런 일을 할 일꾼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세상에 구원해야 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주님은 일꾼을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응답

하시면 여러분이 바로 사역자요, 일꾼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주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연대기적으로 차분히 다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된 것을 반복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땅 위에 물들의 홍수가 임할 때에 노아가 육백 세더라.]**(6). 노아의 나이 600세, 아담이 지음 받은 창조 후 1656년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흔히 설교자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적 사실이 아닙니다. 창세기 5:32에는 노아가 오백세가 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 장자인 야벳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 때 셈의 나이는 98세였습니다. 셈은 홍수 뒤 이년이 지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때 나이가 100세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창11:10).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던 때는 이미 노아의 아들들이 장성하여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창6:18 참조. 노아는 주님으로부터 홍수가 있을 것이란 말씀을 듣고 곧바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께 받은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노아는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주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수십 년의 거듭되는 선포에도 불구하고 회심자는 없었습니다. 노아는 인기 없는 설교자요, 능력 없는 설교자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설교자요 미친 늙은이 정도로 취급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듦으로써 자신이 선포한 주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온 세상에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떤 행위를 통해 성도 자신이 믿는 믿음을 보여 주게 하십니다. 에스겔이나 이사야를 비롯한 대언자들이 자신의 삶과 행동을 통해 실물 설교를 했는데 이는 그런 것을 통해 말씀을 증언하는 표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의 명령으로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주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사20:2-3). 에스겔은 430일을 드러누워서 더러운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겔4:1-14).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음행을 증언하기 위해 창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호1:2-3). 오랫동안 방주를 만드는 일은, 그 자체가 노아를 통해 선포한 주의 말씀을 표적으로 증언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생의 남은 시간동안 때를 주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일과 행위로 증언하고 보여야 합니다. 성경은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약2:18)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 노아의 방주 제작을 통해 오랫동안 세상에 다가올 심판을 증언하고 보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 능력, 지혜, 존재 등을 자랑하고 보여 주기 위해 이런 저런 일을 합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 주기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구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주께 가증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16,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 믿음의 선한 행위를 보여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약3:13).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를 보이십시오. "보일지니라"-이것은 명령입니다. 디도서 2:7,10을 보십시오. **[모든 일에서 네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딛2:7),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딛2:10). 반복해서

"보이며, 보이고, 보이게 하라"고 말합니다. 디도서3:2,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딛3:2). "보이게 하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한 구절 더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사랑의 증거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교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라.]**(고후8:24). 위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 사랑, 온유함, 신중함, 성실함, 선하게 충성하는 것 등이 을 '보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히6:10). 주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롬5:8 요일4:9).

7절입니다. **[노아가 홍수의 물들로 인하여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7). 2월 10일에 노아의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일주일 전에 이미 방주로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노아는 아직 자신이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아 믿음으로, 두려움으로 움직였습니다. "방주로 들어갔고..."란 말씀은 노아와 그 가족들의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들어오라" 하셨고 노아는 순종하여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세상을 버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훌륭한 건축물, 위대한 예술품, 금은보화들, 아담 이후로 1,500 년 이상 사람들이 애써 발전시켜 온 모든 산업, 문화, 예술, 재화 등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고 다 버렸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은 노아를 버렸고 노아는 세상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의 모델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갈6:14).

주의 말씀을 대하는 노아의 태도는 우리 모두가 본 받아야 할 본보기입니다. 노아는 말씀을 믿었을 뿐 아니라 믿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온 세상이 멸망해도 주님께서 건지시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극히 적은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나 안전합니다.

8-9절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과 날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이 두 마리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더니]**(8-9).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대로"**란 말씀을 봅니다. 동물들은 사람들보다 주의 말씀에 훨씬 더 잘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당대의 불신자들에게 분명히 기이한 일이요, 표적이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지진, 화산, 해일 등의 자연 재해에 앞서 동물들이 본능으로 피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은 지금도 자주 보고되는 현상입니다. 대홍수란 큰 재앙 앞에서 동물들은 어떤 높은 산이나 계곡으로 모여 든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로 나왔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10절입니다. **[이레가 지나서 땅 위에 홍수의 물들이 임하니라.]**(10).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두가 방주에 들어간 뒤 이레가 지나서 땅 위에 홍수의 물들이 임했습니다. 드디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슬비나 가랑비가 아니라 아예 쏟아 붓는 그런 비였습니다. *땅 위에 임한 홍수의 물들은 자연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자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마침내 심판을 집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땅 위에 홍수의 물들이 임할 때 그들은 비로소 노아가 말한 대로 심판이 왔다는 것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판은 불신자들에게 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계시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11절입니다. **[노아의 생애에서 육백 번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십칠일 바로 그 날에 큰 깊음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11). 성경은 홍수가 터진 날을 노아가 600세가 된 해 2월 17일이라고 합니다.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창8:4) 5개월(150일 *창7:24) 동안 물들이 땅을 덮었습니다. '큰 깊음의 샘들'이란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지하의 수맥이 터진 것이 아닙니다. 깊음의 샘들이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에서 말한 "온 땅을 덮고 있는 깊음"을 말합니다. 지금 이 '깊음'은 그 표면이 얼어 있습니다.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욥38:30). 잠언8:27-28,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비하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분께서 깊음의 표면에 한계를 정하시고 위로 구름들을 굳게 세우시며 깊음의 샘들을 강하게 하시고]**(잠8:27-28). 창조 과정에서 주님은 깊음의 표면에 한계를 정하시고, 깊음의 샘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 깊음은 태양계 저 밖에 있는 깊음입니다. 땅의 깊음, 바다의 깊음, 지옥의 깊음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곳은 용들이 거닐고 있습니다. 욥기 41:31-32, **[깊음을 솥이 끓는 것 같이 끓게 하며 바다를 향유 단지같이 만드는도다.** 그가 자기 뒤에 길을 만들어 빛나게 하므로 사람이 깊음을 백발 같다고 생각하리라.](욥41:31-32).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란 말씀은, 우주의 구조가 집과 같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왕하7:2,19. 댐의 에 수문을 열듯이 주님께서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을 여셨다가 40일 만에 그것을 닫으셨습니다(창8:2). 대언자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일조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늘의 창들을 열고 복을 쏟아 붓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말3:10). 이를 통해 하늘은 열리고 닫히는 문이 있고, 열리고 닫히는 창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이나 지옥을 실제 문자적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마음 상태, 정신적, 영적 상태로 아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12절입니다. **[비가 사십 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쏟아졌더라.]**(12).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분당 얼마나 쏟아졌는지 지구상의 모든 땅을 다 덮어 버렸고,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40일, 40년이 시험의 기간이요, 변화의 기간으로 나옵니다. 본문에 보듯이 노아의 홍수는 40일간 이 땅에 내렸고 비가 내린 40일은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세 역시 시내 산에서 40일간 두 번을 주님과 함께 있었으며 이 기간에 그는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출24:18;34:28).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 모두 죽었습니다(민14장 신1:34-35 고전10:5 히3:17).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밤낮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여 변화되었습니다(왕상19장). 골리앗은 40일 동안 자신을 드러내었고(삼상17:16), 다윗은 이 대적자를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선포로 40일 동안 변화되었습니다(욘3:4). 예수님 역시 40일간 광야에 계시면서 변화되셨습니다(마4:2).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행1:3) 하나님의 왕국과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유난히 40이란 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 때마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십년을 통치했습니다. 다윗 역시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솔로몬 역시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이들은 역사의 변화, 변혁기에 있었던 왕들입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는데 "쏟아 부으셨다"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바로 그 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한 그들의 세**

아내가 방주로 들어가되](13). 13절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짜에 약간 혼란을 주는 듯한 말씀입니다. 일주일 전에 이미 방주로 들어갔는데 본문에서는 2월 17일에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총 4번 기록되어 있는데 방주에 들어간 날짜가 다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창세기의 역사성,문서 조작설, 편집설, 서로 다른 저자들의 기록 이라는 등등 많은 주장들이 나옵니다. 성경을 믿기보다 의심하기 좋아하는 이들에게 이런 구절들은 너무나 좋은 재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나올 때 어떤 자세, 태도를 취하십니까?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대부분의 불신자들과 동일한 성경관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이 완전할 수야 없겠지요. 그런 오류는 사소한 것으로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등등입니다. 반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이론을 끌어 들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날에"란 말은 비가 쏟아진 40일 동안 전체를 말합니다. 12절에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음을 말하고 '바로 그 날에'라고 말합니다. 비가 온 첫 날에가 아닙니다. 14-16절은 40일 동안 비가 내린 바로 같은 날에(self same day)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2월 10일에 주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는 방주로 들어가는 날 비가 오는 날짜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란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방주 안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일주일간 그들은 집 대신 방주를 생활공간으로 사용했고 방주에서의 삶에 대한 적응 기간을 거친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비가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2월 17일 비가 온 날 주님께서 방주 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 생활한 일주일간은 이 땅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월 10일은 방주에 처음 들어간 날이고 2월 17일은 방주의 문이 닫힌 날입니다. 창세기 6:18-22는 '방주를 지은' 노아의 순종에 관한 기록이고 창세기 7:1-5절은 '방주로 들어간' 노아의 순종을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 7:11-16절은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을 모두 정리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날짐승 곧 모든 종류의 모든 새가 그것의 종류대로 들어가고]**(14). 방주는 거대한 동물원이 되었습니다. 땅 위의 모든 짐승, 모든 가축, 모든 기는 것, 모든 날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홍수로 모든 생명체를 멸하시고 다시 창조하시는 대신 홍수 이전 세대의 창조물들을 그대로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는 앞으로 임할 심판에서도 주님의 보호를 통해 생명체들을 보존해 주실 것임을 예표합니다. 대환란 동안에 구원 받은 사람들과 동물들은 모두 천년왕국에서 살게 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지구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면서 핵 재앙이나 행성 충돌, 빙하기의 도래, 오존층 파괴나 이상 기온 등으로 인한 지구 종말을 말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실(진리)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상상과 이론, 가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구 종말론과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조금도 같지 않습니다. *요8:44 롬3:4

15절입니다.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 중에서 둘씩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가니]**(15). 방주에 탄 짐승은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육체인데 코로 호흡하는 동물들입니다. 대부분의 양서류, 어류, 파충류와 같은 물에서 사는 것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식물은 당연히 제외되었습니다. 40일 동안의 비와 150일 간이나 온 땅을 덮은 물, 기온의 하락 등을 생각하면 방주에 오르지 않는 육상 동물들은 어떤 경우에도 살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가미 호흡이나 피부 호흡을 하지 않는 기식 동물들은 물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그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16). 이 부분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구원의 주체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방주 안에 넣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는 휠체어를 탈 만큼 늙은 나이가 아니었고,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 방주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주께서 그를 안에 넣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안으로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 스스로 피할 수도 없습니다. 방주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보다 방주 안에서 낮잠을 자는 사람이 더욱 안전합니다.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인격과 성품의 소유자인가? 얼마나 부자인가? 등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 거하는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요15:4),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요일2:28).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마치 대홍수에서 방주 밖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주 하나님이심에 주목하십시오. 방주의 주인은 노아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노아의 방주라고 지칭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모세의 언약궤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의 방주가 맞습니다. 주님은 양들의 문이십니다(요10:7). 주님께서 닫으시면 아무도 열지 못합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계3:7-8). 주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자동문처럼 저절로 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이로써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방주 안에 들어갈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집 주인이 한 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눅13:24-25). 성경은 '문이 닫힌 뒤에는 기회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주님은 지금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누구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가 영원히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때, 받아 주실만한 때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가 주님께서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주님께서 문을 닫았다고 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작 오랫동안 문을 닫았던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문이 닫히고 주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그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계3:20). 주님께 문을 열어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문이 닫힌 후에 주님께 문을 열어 달라고

한다면 그 보다 더 큰 모순이 없습니다. 주님께 문을 연 사람들에게 주님 역시 자신 안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 주십니다.

마침내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경고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방주에 있던 자들만

말씀: 창7:18-24
요절: 창7:23

오늘 말씀은 심판의 집행과 결과에 대한 간략한 묘사입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임했습니다. 땅 위에 주를 믿는 자들은 모두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방주 문을 닫으시는 순간, 주님께서 성도들을 이 땅에서 데려 가시는 그 순간 이 세상에는 주님의 심판, 진노가 쏟아집니다. 우리는 대 환란 전에 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교회 내에 환란통과에 대한 이론이나 주장이 매우 많지만 성도들이 세상에 쏟아지는 주의 심판을 받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2절, "모든 것이 죽었더라"입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함께 있던 것들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대홍수의 심판은,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전쟁, 지진, 홍수, 가뭄, 전염병 등 어떤 참혹한 재앙 등과는 전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대홍수는 코로 호흡하는 지면의 모든 생물이 다 죽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나 이상 기온으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비를 내리신 심판의 결과입니다. 대홍수의 역사성은 성경 외에도 각 민족의 신화나 설화를 통해 그대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지질학적, 과학적 증거 역시 대홍수의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인류의 창조 1,600이 좀 덜 되었을 때 주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의 폭력이 온 땅을 채우고, 어려서 생각하는 모든 것, 마음의 상상마저 악할 때 주님은 자신이 지은 모든 것을 땅에서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 널리 퍼진 왜곡된 성경관, 신관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누군가를 멸망시키거나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만을 외치다 보니 하나님의 공의, 심판, 거룩, 보복 등이 모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보복하시는 주 하나님에 대한 성경 기록을 도저히 수용하지 못합니다. 지옥이란 문자적 공간이요, 믿지 않는 혼들이 던져지는 물리적 장소이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사실을 단지 문학적 비유나 상징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지옥에 던져진 후에야 지옥의 실재를 알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 거리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잔인한 분으로 만드세요?"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지옥, 불, 심판 등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잔혹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옥의 실재를 전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와 행위는 전혀 악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은 매우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항상 악을 생각하며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은 결코 화를 내시거나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듯합니다. 대홍수에서는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성인 어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젖먹이들까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고나 재앙이 닥칠 때 그런 것들이 여자나 어린 아이들을 피해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항상 용서하시고 결코 진노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가르침은 성경적 진리도 아닐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나 상식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딤후4:8). 주님은 언제 누구를 심판하시든 참되고 의롭습니다. 계시록 16:5,7을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니이다.]**(계16:5).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첫 번째 사건이 노아의 대홍수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대홍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는가?' '꼭 모두 죽이셔야 하는가?' 등의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합당한가? 불가피한 일이었는가?' 등의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이다, 하더라.]**(계16:7). *계19:2,11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18절입니다. **[물들이 넘쳐서 땅 위에 크게 불어나매 방주가 물들의 표면 위로 올라갔으며]**(18). 하늘에서 깊음의 창들이 열리며 쏟아진 물들은 금방 땅 위에 크게 불어났고 방주는 물들의 표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무릇 땅 위에 살던 것들은 모두 불어나는 물을 보면서 공포에 질렸을 것이고 금방 죽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잠깐 쏟아질 비가 아니란 것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도 온 몸을 관통했을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 선포된 세상의 멸망이 실재로 임했다는 것을 아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특별한 과학적 지식이 없더라도 방주 밖에 있던 사람은 누구나, 뭔가 세상을 뒤 짚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주는 물들의 표면 위로 올라갔고 세상은 물속으로 내려갔고 마침내 잠겨 버렸습니다. 그동안 하늘과 별을 관찰하며 이런 저런 지식을 자랑하던 이들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에 충격과 공포를 느끼며 죽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 있는 보따리 하나라도 챙겨서 좀 더 높은 곳으로 달리는 사람들, 아이를 껴안고 달리는 아버지나 어머니들의 절규 소리, 지붕 위나 높은 탑 꼭대기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밟고 밟히는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기도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 이를 갈며 절규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렸을 것이고, 원숭이처럼 높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점차 불어 오르는 물을 보면서 비명을 지르는 사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쏟아져 내리는 비에 산이 무너지고, 강둑은 터지고, 땅이 갈라질 때 사람들은 제 정신으로 죽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비는 쏟아졌고, 심판은 임했습니다.

19절입니다. **[물들이 땅 위에 크게 넘치므로 온 하늘 아래 있던 모든 높은 산이 덮였더라.]**(19). 당시 산들의 높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말라야, 안데스, 알프스의 산들처럼 몇 천 미터가 넘었다면 물의 양은 정말 상상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대홍수 이전의 대부분의 산들이 그다지 높지 않는 동산이나 언덕 정도였다면 온 땅을 덮는 홍수의 양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홍수를 통해 지구의 지표면 자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해저가 융기하고 대륙이 가라앉는 일, 또는 이동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하늘 아래 있던 모든 산이 덮였습니다. 물이 모든 산을 덮어 버렸으니 지구는 거대한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20절입니다. **[물들이 불어서 십오 큐빗 위로 오르매 산들이 덮이고]**(20). 모든 산들을 덮은 물은 산꼭대기 정상에서도 약 15 큐빗 위로 올랐습니다. *1cubit=45.72Cm(영국 도량형 기준). 이 말씀은, 홍수의 물들이 산들을 겨우 덮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덮어 버렸음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서 약 8-10m 이상으로 덮을 만큼의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입니다.

21절입니다.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사람이라.]**(21). 이것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습니다. 동물들은 아담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습니다. 대홍수 때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 또 멸망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들의 운명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물 보호, 자연 보호, 환경 보호 등을 주창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한 가지 진리는 사람이 동물을 보호한다고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동물 보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 역병 등의 재앙은 동물들에게도 엄청난 재앙입니다. 대홍수의 심판은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이집트 땅에 임한 열 가지 재앙의 심판 중에 이집트의 동물들 역시 똑같이 심판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장자 재앙 때에는 짐승들 중에 처음 난 것들도 다 죽었습니다(출11:5;; 12:29;; 13:15). 로마서 8:19-22을 보십시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런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롬8:19-22). 하나님은 사람의 죄로 인해 땅과 땅에서 사는 동물들을 함께 심판하셨고, 천년왕국 때에는 땅과 동물들이 함께 회복됩니다.

22절입니다.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 중에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던 모든 것이 죽었더라.]**(22). 성경에 반복되는 한 마디가 "죽었더라."입니다. 그들은 왜 다 죽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매우 다양해 보입니다. 질병, 사고, 홍수, 불, 전쟁, 노화, 기근 등. 우리는 별별 다양한 죽음의 원인을 말하지만 그런 것들은 죽음의 원인이 아니라 현상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죄'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은 것은 대홍수 때문인 것 같지만 본질은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롬5:12),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롬5:21),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6:23). **[...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약1:15). 우리는, 사람이 죽는 이유, 사망의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은 죄의 삯이요, 결과요, 열매요, 심판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모두 다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지만 죄인들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죄인이어서 죽는 것이지만 사실 죽음에 이르는 더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삽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불신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주의 피를 믿음으로 제거됩니다. 사람의 모든 허물과 범죄, 불법은 주의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불신입니다. 대홍수에서 구원 받은 노아와 멸망한 사람들의 차이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말

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요8:24).

"모든 것이 죽었더라." 심판의 결과는 지상에 존재하던 거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던 천사들까지 모조리 죽음에 처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19-20,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여덟 혼이라.]**(벧전 3:19-20). *감옥에 있는 혼들이 아니라 "영들"이란 말에 주목할 것.

23절입니다. **[지면 위에 있던 모든 생명체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날짐승이 멸망하였더라. 그것들이 땅에서 멸망하였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23). 완벽한 심판입니다. 오늘날 남아 있는 수많은 화석들은 그 때 임했던 심판의 역사성을 생생하게 증언해 줍니다. 지면 위에 있던 모든 생명체,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날짐승이 멸망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 노아의 홍수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물의 넘침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6-7절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벧후3:6-7). 여기서 '그 때의 세상, 물의 넘침'은 창세기 7:22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는 '현 세상(지금 있는 세상)'이지 '그 때의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노아의 홍수로 멸망한 것이 그 때의 세상이 아니라 '지면 위에 있던 모든 생명체'라고 하십니다. 식물들을 비롯해서 바다의 생물들은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땅을 더럽힌 것들에 한정된 것입니다. **"그것들이 땅에서 멸망하였고...."**입니다. 땅이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한 '그 때의 세상'은 6일 창조 이전이며, '물의 넘침'은 창세기 1:2에 나오는 물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지면 위의 생물들은 땅에서 멸망했지만 이 죽음의 멸망보다 무서운 것은, 지옥에서 혼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구원, 멸망은 주로 몸에 관한 것이요, 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구약의 구원의 기준은 주로 육체의 삶과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을 모두 같은 의미로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용된 '구원'은 대부분 육체적 생명(목숨)을 건짐 받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질병이나 기근이나 포로 됨, 위기 상황, 천재지변과 같은 재앙에서 죽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자 주님을 깨우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마8:25)라고 했는데 이때 구원은 혼의 구원, 죄 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죽지 않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마14:30)라고 외쳤는데 이 역시 지옥 가지 말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에 빠져 죽지 않게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면 그것은 죄 사함이나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부터 건져 달라거나 피하거나 이기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할 때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몸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회개와 믿음을 통한 혼의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는 달리 이미 믿음으로 혼은 구원 받았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홍수, 지진, 화재, 전쟁, 질병이나 교통사고, 총기 사고 등으로 죽는 사람

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의 구원, 멸망은 주로 혼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마10:28). 복음은, 몸이 아닌 혼의 구원, 혼의 멸망을 다룹니다. 주님은,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전2:4). *원하시느니라=will(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아무도 혼의 멸망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3:9). 우리의 몸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런 지진이나 쓰나미, 각종 화재, 교통사고, 총기 사고, 질병,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죽음, 멸망이 혼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히10:39).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벧전1:9). 우리는 이미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이 안전합니다.

23절입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23). 온 땅을 덮어 버리는 엄청난 물이 쏟아졌고 지면의 모든 육체가 다 죽었지만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남김없이 모두 다 받으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했습니다. 방주는 죽음의 심판 속에서 모든 생명을 다 보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 무엇도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죽게 할 수 없습니다. 방주 안에는 주님이 계셨고,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28-29,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요10:28-29). 사망의 권능을 지닌 마귀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구원, 생명을 빼앗지 못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간계와 속임수로 올무에 걸 수 있고, 자신의 뜻대로 사로잡을 수도 있지만 결코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지 못합니다. 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 몸이 병들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고전11:30 요일5:16). 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에 진리를 대적함으로 사탄에게 넘겨져 몸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고전5:5 딤전1:20). 그러나 마귀는 결코 그들 안에 있는 구원(생명)을 빼앗지 못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구원 받은 자는 방주 안에 있던 자가 전부였듯이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구원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전부입니다.

24절입니다. **[물들이 백오십 일 동안 땅 위에 넘쳤더라.]**(24). 40일간 쏟아진 비로 인해 물은 무려 150일 간이나 땅 위에 넘쳤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금방 줄어 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땅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날 수가 150일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동안 방주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과 물로 덮인 땅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온 땅을 덮은 물은 창세기 1:2에서 한 번 나왔고 창세기 7:24에서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이 사이 지구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을 것입니다. 기후 변화, 지질 변화, 지형 변화 등은 물론이고 홍수 이전 세상과 홍수 이후의 이 세상은 물리적으로도 거대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온 땅에 넘치는 물은 온 세상에 넘쳤던 죄들을 보여 줍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1,500년 동안 땅을 부패시키

던 폭력, 살인, 음행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온 땅을 덮었듯이 주님은 150일 동안 물로 땅을 덮으셨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말씀: 창8:1-12
요절: 창8:1

오늘 말씀은 40일 동안 비가 내린 후부터 물이 마르기까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방주로 들어간 날부터 시작해서 일기를 쓰듯이 정확히 날짜를 기록해 두심으로써 대홍수의 심판이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 사건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자인 모세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 사건을 기록했는데 비가 내린 기간, 비가 내린 후 물이 마른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 지질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아무리 이 사건의 역사성을 부정한다 해도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을 나는 비행기보다 더 높이 떠있는 방주의 모습을 생각하며 본문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선 항공기가 30,000 피트 정도의 고도를 사용하고 국내선인 경우 20,000피트 정도의 고도를 사용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최고도로 올랐을 때는 마치 국제선이 하늘에 떠 있는 높이였습니다. 방주에 탄 노아나 가족들, 동물들은 방주 안에서 살면서 호흡 곤란으로 산소마스크를 하거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순식간에 저 하늘 높이로 올라가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는 40일 동안 수면 상승으로 인해 저 하늘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trauma(정신적 외상)에 빠질 우려가 충분할 정도의 충격과 공포의 시간입니다. 방주 밖에 있던 온 땅의 생물들이 죽었고, 세상을 완전히 덮은 물 위에 떠서 이리 저리 움직이는 상태에서 아무런 마음의 동요없이 평안을 유지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모습에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그의 가족들은 온 세상의 멸망을 현장에서 겪었습니다.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극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지켜 주셨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8장에 들어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주의 명령(말씀)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노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했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의의 상속자로 세상을 상속 받았습니다(히11:7). 이것은 성도들의 일생을 보여 주는 패턴입니다. 창세기 7:1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구원으로의 초청이요, 부르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2:17은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초청의 음성입니다. 둘 다 "오라"(Come)입니다. 주님은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마11:28).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계22:17). 주님은, 누구든 구원의 초청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in no wise) 쫓아 내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6:37). 노아는 주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느라 애쓴 공로, 노력, 수고(일), 행위를 인정받아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주를 만드느라 흘린 땀과 수고, 노력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방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수고한 목수들, 역청을 만들었던 일꾼들은 아무도 구원 받지 못했습니다. 방주 제작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홍수에 빠져 죽었는데 이는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방주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 있던 사람, 동물들은 엄청난 홍수 속에서 단 한 방울의 비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의 진노와 심판을 전혀 경험하지 않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줄어들었고]**(1). 이제 40일간의 비는 그치고 방주는 온 세상을 덮은 물 위에 떠서 이리 저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아는 지도나 나침반을 가지고 항로를 개척하거나 어딘가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예정한 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세상이란 바다 위에서 떠도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어릴 때 세운 계획과 꿈대로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계획에도 없고, 예상치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란 항로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시107:30).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사"란 말씀은 주님의 주 관심사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음을 보여 줍니다. 주님은 물에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방주 안에 살아 있는 존재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 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3:36).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는 산 자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입니다. 요한일서 5:11-12을 보십시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5:11-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막12:27).

주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과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신다는 것은 잊지 않고,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구원하신 주님은 노아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창9:15-16). 주님은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멸하실 때에 누군가를 기억하시고 롯을 구출하셨습니다. 누구를 기억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창19:29 ~~20~~).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신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출2:24). 주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였노라."(출6:5).

주님이 기억하시면 뭔가를 행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줄어들었고]**(1). 이 부분은 창세기 1:2절과 대조를 이룹니다. 창세기 1:2에서 주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깊음의 표면)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대홍수 때 바람은 땅(지구) 위로 지나갔습니다. 물 위가 아니라 *땅 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 위를 덮은 물도 여전히 땅(지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에서 물의 넘침으로 멸망한 것은 온 *땅(지구)이 아닌 온 우주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물의 넘침으로 멸망한 것은 *우주(하늘)가 아닌 "땅과 그 위의 생물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사 물들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혔으며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2). 비는 40일 만에 그쳤습니다.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혔습니다. 하늘을 열고 닫으시는 권능이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비를 내리시고 그치게 하시는 분 역시 주 하나님이십니다. 눈, 비, 우박, 이슬이 내리는 것을 단지 자연 현상이거나 기상이변이거나 기타 어떤 물리적 현상으로 아는 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주님은 일기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신11:17; 28:12. 주님께서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왕상18:1) 말씀하시면 몇 년 동안 비는 고사하고 이슬조차 없던 땅에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반대로 늘 비가 오던 땅이라도 주께서 하늘을 닫아 버리시면 전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내가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사5:6). *렘14:22. 주님은 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비를 통해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진노, 심판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확하기까지 아직 세 달이 남았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도시에는 비가 내리게 하고 다른 도시에는 내리지 아니하게 하였으므로 어떤 부분에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아니한 부분은 마르매]**(암4:7). 천년 왕국 때에는 비를 통해 온 세상에 주님의 심판과 징계를 알리십니다. *슥10:1;14:17,18. 깊음의 샘들과 하늘이 창들은 정확히 40일 만에 닫혔고,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방주 위로 내리치던 빗소리가 그치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았을 것입니다.

3절입니다.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백오십 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3). *And the waters returned from off the earth continually:(KJV).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 땅 위의 물들을 말리셨습니다. 햇볕과 바람은 강력한 증발 작용을 일으킵니다. 이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름들이 형성되었을 것이고, 극지방의 엄청난 얼음, 땅속의 지하수, 이전에 없던 거대한 대양 등이 생겼을 것임은 쉽게 짐작됩니다. 지구의 2/3가 바다로 되어 있는 현재의 모습은 대홍수 이전의 땅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자, 다 같이 본문을 보십시오.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란 말씀은 일대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지 수증기나 안개 정도의 증발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비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40일간은 하늘에서 땅으로 비가 쏟아져 내렸는데 이제는 반대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비입니다. 말씀을 통해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컴퓨터 그래픽이나 영화로 이 장면을 묘사한다면 정말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나 110일 동안 비가 땅을 떠나 되돌아가는 장면은 모두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홍수와 더불어 가뭄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거대한 호수나 강이 몇 일만에 바닥을 드러내고 완전히 말라 버리는 경험을 통해 어렵지 않게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을 떠나 되돌아가는 물은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비"**로써 온 세상이 마치 사우나처럼 엄청난 수증기가 분수처럼, 증기 기관차가 뿜어대는 연기처럼 하늘로 물이 올라가 땅 위의 물들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4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십칠일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4).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지 정확히 5개월 만입니다. 성경의 역력은 언제나 음력입니다. 오늘날은 365일 태양력 체계이지만 본래는 360일 태음력 체계였습니다. 지금의 역력 체계는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지축의 변화, 자전과 공전 주기가 변화된 것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3월 16일에 비가 그쳤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했습니다. *안착=rest(안식). 노아의 방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 빌딩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40일 만에 온 세상의 모든 높은 산위로 올라갔다가 지구의 가장 높은 산들 위에 떠 있던 방주가 물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급격히 하강합니다. 마치 높은 산에서 밑으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을 연상하면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해발 29,000피트 이상에 떠 있던 적도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 대형 항공기가 하늘을 떠 있는 높이만큼이나 높이 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물들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약 17,000 피트 정도의 높이로 하강했습니다. 아라랏 산들(산맥)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방주가 산꼭대기 어딘가에 멈추어 선 것입니다. 이제 물들 위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않고 아라랏 산들에 정착한 것입니다. 아라랏이란 지명은 창조, 거룩한 땅이란 뜻입니다.

참고- 아라랏 산. 아라랏 산은 터키와 러시아, 이란의 각 국경선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位置)해 있으며 높이 5.160m의 산(山)입니다. 아라랏 산은 전 세계의 중심(中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본(地球儀)을 놓고 남(南)아프리카 남단(南端)에서 베링해협까지 줄을 그어 보면 아라랏 산 지점을 지나며 멕시코(Mexico)에서 유럽(Europe)을 거쳐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까지 줄을 그으면 또 이 곳을 지납니다. 아라랏 산(山)의 정상에서부터 1,200m까지는 두께 244m의 만년설(萬年雪)로 뒤덮여 있습니다.

5절입니다. **[또 물들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였더라.]**(5). 방주가 정착한 지 2달 반 정도가 지난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였습니다. 아라랏 산이 한 개의 산이 아닌 산맥임을 보여 주는 구절입니다. 물이 줄어드는 속도가 경이적입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지나가게 하셔서 물들이 땅을 떠나게 하는 장면은 비가 내리는 것보다 몇 배는 더 기적적인 일입니다. 드디어 10월 1일에 아라랏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절입니다. **[사십 일이 지난 뒤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6). 11월 11일 노아는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을 열었습니다. 방주 안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물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방주에서 사는 것은 결코 낭만이나 유람이 아니었습니다. 방주 안은 지상 낙원이 아닙니다. 방주 안은 경치가 좋은 유원지가 아니고, 오늘날 고급 호텔이나 콘도처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완비된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방주를 타고 크루즈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8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방주에 탄 동물들을 먹이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을 것이고, 아무런 유흥이나 취미 생활, 기타 여가 생활 등이 없는 삶을 10여 개월 살다 보면 미칠 지경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방주 안이라고 해서 인간으로서 겪는 가족 간의 갈등, 형제간의 질시 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얼마든지 불평, 불만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최초의 지역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인간의 본성은 어디에 살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노아가 방주의 창을 열었습니다. 닫혔던 방주의 창을 열었다는 것은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방주가 아라랏 산에 안식한 후에 40일이 지난 11월 11일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방주 안으로 밀려 들어왔을 것이고 바깥 공기를 접하는 그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를 준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7절입니다. **[까마귀를 내보내매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여기저기 오갔더라.]**(7). 노아는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내 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물들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여기저기 오가며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방주 밖은 까마귀가 살 정도의 환경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까마귀에게 지금까지 살았던 방주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자신의 처소, 자신이 머물던 곳으로 돌아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방주로 돌아와 노아가 주는 음식대신 물 위에 떠 있는 각종 시체들, 쓰레기들을 먹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동서양의 구분 없이 고대로부터 까마귀는 흉조, 기분 나쁜 새, 부정한 것, 가증이 여겨집니다. 율법에서 날짐승 중에서 가증이 여길 것 중에 "모든 까마귀 종류"(레11:15)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노아가 임무를 준 첫 번째 짐승이었습니다. 노아는 까마귀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천한 자, 아무 것도 아닌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까마귀를 자신의 사역자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왕상17:4). 주님은 욥에게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에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의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욥38:41)라고 하셨습니다.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는다고 말합니다. 까마귀 새끼들에 해당하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힘들 때 엄마, 아빠, 친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위험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릅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불이 난 건물에 갇혔는데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입에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살려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위기에 처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양심과 이성, 생각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부르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시147:9).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라...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눅12:24)라고 하셨는데 이는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가증이 여기는 짐승까지 먹이시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 보호하심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보내어 물들이 지면에서 줄어들었는지 알아보려 하였으나]**(8).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 보내었습니다. 까마귀와 달리 비둘기는 평화, 순결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신문 카툰에 보면 올리브 잎을 물고 있는 비둘기의 삽화는 언제나 평화를 상징하는데 이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비둘기는 성령의 예표이며(마3:16 눅3:22 요1:32)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표입니다(아5:2;6:9). 이와 달리 까마귀는 공중의 새들과 같이 더러운 영들의 예표입니다(마13:4 계18:2, 단4:12). 영어에서 까마귀(raven)는 걸신들린(ravenous) 검은 새에 대한 지칭입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 사용된 단

어는 그 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까지 정의해 주는 예가 매우 많습니다. 말씀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선택을 받아 창밖으로 나간 까마귀와 비둘기는 이 세상에 사는 두 부류의 사람들(자연인, 크리스천)을 보여 줍니다.

9절입니다. **[온 지면에 물들이 있어서 비둘기가 발바닥 놓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므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들어서 자기에게로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고]**(9). 비둘기는 까마귀와 달리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비둘기는 땅에 발바닥을 놓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면에는 여전히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둘기는 까마귀처럼 물 위에 떠 있는 시체들이나 쓰레기더미 위에 앉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그런 곳보다는 여전히 방주가 더 안전하고 좋았습니다. 까마귀는 방주보다 물 위의 쓰레기더미가 더 좋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방주 안으로 들였습니다.

10절입니다. **[또 다시 여전히 이레를 머무른 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매]**(10). 다시 일주일이 지나자 노아는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 보냈습니다. 비둘기는 노아에게 방주 밖의 물의 상태를 알아 오도록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까마귀는 여전히 방주 주변에서 고함을 지르고 ~~며~~ 노닐며 마음껏 원하는 대로 먹었을 것입니다. 방주 밖에는 먼저 나온 까마귀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가 전부입니다. 그 외의 모든 새들은 다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 탄 동물들은 물이 줄어들어 밖으로 나올 날짜만 가다리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보라, 그것의 입에 잡아 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더라. 이처럼 노아가 물들이 땅에서 줄어든 줄 알았으며]**(11). 저녁때에 비둘기가 노아에게 돌아왔습니다. 비둘기는 지난번처럼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입에 잡아 뜯은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대홍수 속에서도 나무들은 아무 이상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본 노아의 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둘기는 물 위에 떠 있는 한 두 개의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잎사귀를 잡아 뜯어서 온 것입니다.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뿐더러 땅 위의 나무들을 비롯한 초목들이 모두 온전함을 보여 준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또 다시 여전히 이레를 머무른 뒤 비둘기를 내보내매 그것이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12). 노아는 해수면을 측량하는 기사처럼 일주일마다 비둘기를 내보냄으로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땅의 상태는 어떤지 점검했습니다. 이번에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이를 통해 물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었을 것이고 땅이 말랐다는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비둘기가 땅에서 살 수 있을 정도면 사람 역시 살 수 있습니다.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활용하여 방주 밖의 사정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주님께서 방주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방주에서 나갔더라.

말씀: 창8:13-22
요절: 창8:15,16

비가 내리기 일주일 전에 방주에 올랐던 노아는 377일간의 긴 시간을 방주에서 보낸 후 드디어 방주에서 나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나 나가는 것이나 모두 주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음에 주목하십시오. 방주를 만들 때부터 모든 일을 다 주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움직인 노아는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 본이 됩니다. 크리스천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 분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종이란 뜻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관습적으로, 존경의 표시 등으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눅6:46)라고 하셨습니다. 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노아는 주의 명을 받아 모든 일을 주의 말씀에 따라 다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창6:22).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창7:5). 의의 선포자 노아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벧후2:5).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성도들의 삶의 표준입니다.

크리스천은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딤후2:3-4). 주님은 구원의 대장이십니다(히2:10). 어느 군대든지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신 것이 바로 영적 제식 훈련이었습니다. 민수기 9:18-2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책무를 지켜 이동하지 아니하였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 간 머무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때에 그들이 이동하되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위에 남아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것이 떠오르면 이동하였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민9:18-23). 하나님의 군대는 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주의 명령에 따라 안식합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예수님의 주(主)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바른 관계만 정립되어도 수많은 영적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13절입니다. **[제육백일년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물들이 땅에서 마르매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13). 노아는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고 2월 17일에 방주 문이 닫히면서 비가 내렸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창조 후 1657년 1월 1일에 방주의 덮개를 열었습니다. 노아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땅에 물이 마른 것을 알고 방주의 덮개를 치웠는데 예상대로 지면이 모두 말랐습니다. 땅의 모든 산을 다 덮었던 물들이 땅을 떠나 하늘로 되돌아갔습니다. 방주는 덮개가 있었는데 이는 방수 시트의 역할을 했습니다. '덮개'란 말은 출애굽기 36:19; 민수기 4:8,10,11,12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노아는 비가 완전히 그칠 때까지 이 덮개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방주의 창을 열고, 이제 방주의 덮개가 열렸습니다. 이제 방주를 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14절입니다. **[둘째 달 곧 그 달 이십칠일에 땅이 말랐더라.]**(14). 2월 27일 드디어 땅이 말랐습니다. 덮개를 열고 57일간이나 더 방주에 머물며 땅이 말라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노아와 가족들, 동물들은 정말 오랜 시간을 방주에 있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영원히 물속에 잠겨 있을 것만 같았지만 주님께서 보낸 바람으로 인해 땅 위를 덮었던 물들이 모두 없어진 것입니다. 온 땅을 덮을 정도의 비가 온 것보다 그 많던 물이 물러가고 땅이 마른 것은 더 경이롭고 큰 기적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태평양이나 대서양의 물을 보면서 저 물이 1년여 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마른 땅이 되는 일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바다 위에서 배를 탔던 사람들이 암초에 걸려 있었는데 어느 날 바다를 보니 바다가 완전히 말라 버리고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마른 땅을 보는 노아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완전히 변했고 거기 살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15-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고]**(15-16). 세상을 떠났던 노아는 드디어 다시 텅 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라."**(16). 주님은 드디어 방주에서 나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땅에 내린 물들이 다 말랐기 때문입니다.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일을 마치십니다. 사람은 비가 내리고 물이 마르는데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이것입니다. 노아는 자기가 임의로 판단해서 방주를 나간 것이 아닙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일에 주의 명령을 받아 움직였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께서 자신의 간구, 부르짖는 음성,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말에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수록 주님 역시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존중할수록 주님은 우리가 한 말에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사28:23).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잠2:2).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잠4:20). *잠5:1, 22:17 **[네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며 네 귀를 지식의 말씀들에 기울이라.]**(잠23:12).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롬10:17).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생긴 믿음은 종교심이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귀를 돌이켜 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잠

28:9).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고 주의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keep)하고 쌓아 두는 일을 하십시오(시37:31;119:11 잠7:1 골3:16 요일2:14).

노아는 방주의 덮개를 열고 땅에 물이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방주 문을 연 것은 주님이 방주를 나가란 명령이 떨어진 다음입니다.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점이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삼상15:22-23a). 선별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불신자나 이교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법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신이 좋은 대로 판단해서 행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노아와 사무엘처럼 모든 일에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가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17). 이 말씀은 창세기 1:28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첫 사람 아담을 복주셨듯이 노아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에덴에서 모든 기원이 시작되었듯이 이제 아라랏 산의 방주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주에서 나간 동물들이 5대양 6대륙에 흩어져 사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산의 복을 주심으로써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은 급격히 불어났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대륙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지기 싫어 바벨을 중심으로 모였지만 동물들은 그 사이에 온 세상으로 흩어져 사람이 와 보면 이미 거기에는 웬만한 짐승들은 다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들은 알아서 자신들의 정착지를 찾았을 것입니다. 섬 지역과 같은 곳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함께 이주한 것입니다. 텅 빈 섬이라 할지라도 몇 종류의 짐승만 풀어 놓으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동물원을 방불할 정도로 불어났을 것입니다. 물이 물러난 땅은 풍성한 수분으로 인해 최소 몇 백 년은 나무들과 풀들이 우거졌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방주에 탔던 동물들에게 최적의 환경이 제공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고 하심으로 동물들은 기하급수적인 팽창을 했습니다. 이 땅의 동물들은 사람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천년 왕국이 될 때까지 사람들로 인해 겪는 동물들의 고통과 신음 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롬8:22).

18-19절입니다.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 며느리들과 함께 나갔고 짐승과 기는 것과 날짐승과 또 땅에서 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의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갔더라.]**(18-19). 노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 있던 모든 가족과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갔습니다. 동물들은 각기 제 길로 떠났을 것입니다. 아라랏 산에서 내려오면서 온 세상을 바라보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에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방주 밖에서 첫 날을 보냅니다. 어딘 가에 장막부터 쳤을 것입니다. 불을 피우고 필요한 물을 구했을 것이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던 양식들, 땔감, 옷감 등 생필품들은 모두 밖으로 옮겨야 합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바빠졌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방주를 집으로 삼고 계속 살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방주를 나온 노아가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20). 노아는 방주를 나온 후 곧 바로 주께 제단(altar)을 쌓았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제단"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아벨이 주께 희생물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단(altar)을 쌓지 않고 그냥 드린 것입니다. 그 후에 주의 이름을 불렀던 셋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주께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 기록으로 "주께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은 노아가 처음입니다. 노아는 아벨이 믿음으로 희생물을 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놓았고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때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은 식용이 기준이 아니고 헌물이 기준입니다. 노아는 자신과 가족들이 살아남은 것이 '자기 의' 때문이 아닌 '주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드린 번제 헌물은 주께서 자신들을 살려 주신 은혜에 감격한 감사 헌물의 성격보다 자신들도 이렇게 심판 받아 마땅한 존재들임을 시인하는 대속 헌물입니다. 제단 위에 놓인 짐승들은 온 몸을 반으로 갈라 피를 흘리고 그 몸이 불타 버립니다. 죽음, 피, 불은 모두 심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피와 죽음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치지 아니하리니]**(21). 주님은 노아가 드린 번제 헌물을 받으셨습니다.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21)란 말씀은 노아가 드린 번제 헌물이 온전히 받아 드려졌음을 보여 줍니다. 출애굽기 29:18,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주께 드리는 번제 헌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니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니라.]**(출29:18).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제단 위에서 번제 헌물로 주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태울지니라.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니라.]**(출29:25). 주님은 향기를 맡으시는 분입니다. 노아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번제 헌물을 드렸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어해 자신을 번제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엡5:2). 아벨이나 노아가 드린 헌물들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 있는 희생물입니다(롬12:1-2).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고린도후서 2:14-16,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나 멸망하는 자들 중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고후 2:14-16). 우리 자신이 향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은 뭔가 냄새를 맡습니다. 이 냄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향기로운 냄새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견디지 못할 정도입니다. 강렬한 향취를 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향기
헌물 -빌4:18

기도 - 계5:8;8:3-4 출30:34-37 시141:2

"주가 마음속으로 이르시되..."(21). 주님은 마음속으로 하신 말씀인데 모세는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주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아는 2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그 때 드린 헌물을 받으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모세가 쓴 기록을 본 후에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치지 아니하리니]**(21).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아담 이후의 사람들로 인해 땅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십니다. 성악설이 진리로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어릴 때 사람은 누구나 선하다, 백지다, 순백이다' 등등의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은 악합니다. 이것은 어떤 철학자나 심리학자, 종교 창시자의 견해나 정의가 아니라 주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렘17:9)고 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펴 보아도 사람의 선함이나 의로움, 거룩함을 증언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현대 미국 교육은 성경이 말하는바 "사람은 어려서부터 마음이 악하다, 생각, 상상이 부패하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무시함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합니다. 주님은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막10:18).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롬7:18)고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의 상상, 눈, 입, 혀, 마음, 마음, 귀, 손, 발, 길이 모두 다 악하고 더럽고 부패합니다.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22). 홍수 이전과 이후의 기상 변화를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사계절이나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의 뚜렷한 구분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대홍수를 통해 땅은 계절이 생겼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얼마를 지난 후 첫 겨울을 맞았고 눈이나 서리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연 현상, 기후, 기온, 계절의 변화, 낮과 밤이 대홍수 이후에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홍수 전후의 변화를 노아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세상은 방주에 들어갈 때와 전혀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아담처럼 세상의 머리가 되었고, 온 땅을 상속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히11:7). 노아의 세 아들들은 인류의 세 인종의 머리가 되었습니다.